법원, 안정사 토지 1천평 '처분금지'

법화종 종찰 통영 안정사, 토지 증여 논란

지난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진입로 등 1천평 소유권 이전
양도자·양수자 모두 승헌스님 전과 논란됐던 안정사 前 주지

총무원, "증여 승인기록 없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제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6월 23일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대표종찰이자 전통사찰인 통영 안정사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안정사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이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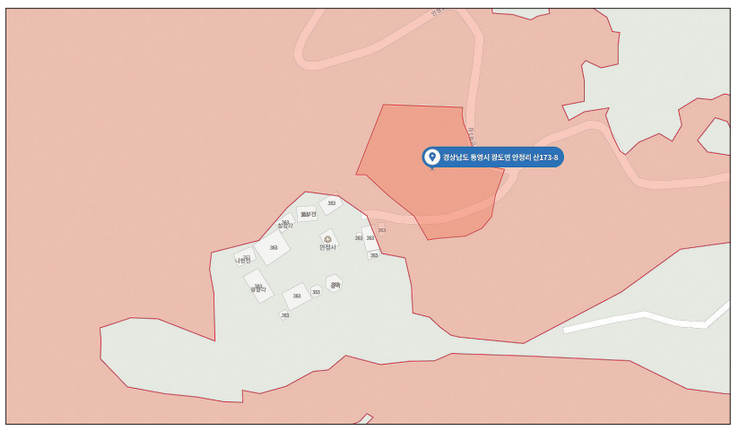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종단 대표자의 승인서가 필요하지만 총무원 공식 자료에 토지 증여와 관련한 승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해당 부지가 안정사로 들어가는 유일한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해당 부지를 증여받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 이사장이 지난해 전과이력으로 인한 자격 논란 물의를 빚었던 안정사 前 주지 승헌 스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단 내 이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본지 취재에 따르면 증여계약서상 양측 당사자인 안정사와 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모두 대표자가 승헌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상 당시 안정사 주지 승헌 스님이 사찰 소유의 1천평 부지를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승헌 스님에게 증여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 "전통사찰의 보존을 책임져야 할 주지가 소임을 활용해 사찰 부지를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승헌 스님이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안정사 주지였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승헌 스님이 '법화신문'에 직접 공개한 '승인서'에 따르면 승인 시점은 2020년 9월 18일이다. 그러나 총무원 공식 문서에 따르면 당시 승헌 스님은 안정사 주지직에서 해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총무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대전지방법원이 前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승려 자격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진우 스님이 행사한 인사권 등 종무행정 일체가 무효화됐다. 승헌 스님에 대한 안정사 주지 임명 또한 무효로 소급되면서, 2020년 9월 9일 총무원장 서리 지관 스님이 승헌 스님에게 '안정사 주지 직위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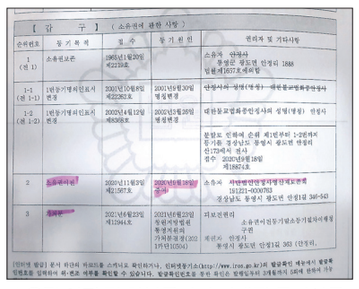
특히 안정사는 종단의 대표적인 종찰이자 전통사찰임에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총무원 공식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승인서와 가계약서, 주지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총무원에 보관된 서류목록 중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양도된 안정사 토지.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



구글맵에서 확인되는 증여부지 안정리 산 173-8.


소유권 이전 및 처분금지가 기재된 등기서류.

총무원 공식자료에 따르면 안정사 부지와 관련한 기록은 2018년 1월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 당시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영산재보존회 전수관건립에 관한 토지 사용승인의 건을 다룬 회의록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한 증여가 아닌 사용승인의 건이며, 대상으로 명시된 필지도 실제 (재)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증여된 필지와 다른 위치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결과 당시 임원회의에서 사용승인의 건으로 논의된 필지는 안정1길 363 소재지의 산173번지 내로, 당시 임원들은 토지사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174번지 내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자부담으로 전수관 건립에 따른 토지이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현재 안정사영산재보존회에 증여된 필지는 안정리 산 173-8 주소지의 임야 3300㎡(1000평)로, 다른 위치인데다가 안정사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토지를 별개의 법인에 양도하는 행위는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등기서류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필지분할을 통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됐으며, 등기 접수는 11월 3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무원 관계자는 "안정사 토지 증여를 위한 분필등기 신청과 총무원장의 증여승인서, 안정사와 안정사영산회보존회 증여 계약, 안정사 임원회의, 사찰주지재적확인서 발급 등이 모두 같은 날인 2020년 9월 18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상식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많다.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헌 스님은 "2018년 임원회의에서 사용승인된 토지와 증여된 토지의 주소가 다른 이유는 '오기' 때문"이라며 "또 지관 스님에게 안정사 주지 직위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9월 23일 스스로 사직했다. 증여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부지는 법원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서리 혜문)측이 즉각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6월 23일 총무원의 가처분 신청취지를 인용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승헌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횡횡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영산재보존회교육전수관 신축건립의 건립추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안정사영산보존회 건립불사에는 조금도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사비로 10억원을 들여 하루속히 불사를 건립해 도제양성을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무원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요청한데 이어, 관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제6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원경스님 선출

마곡사, 7월 15일 산중 총회서
148명 중 84표를 획득해 당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제30대 주지후보에 현 주지 원경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원경 스님은 사실상 마곡사 주지 3선에 성공했다.

조계종 제6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는 7월 15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주지로 현 주지 원경 스님을 선출했다.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원경 스님은 선거인단 151명 중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84표를 획득, 60표를 받은 기호 2번 선일 스님과 24표 득표차로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무효표는 4표로 집계됐다.

이날 원경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저를 다시 교구본사주지로 선출해 주신 교구 대중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말사 화합에 더욱 노력하면서 각종 불사와 교구 승려복지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달라는 엄중한 당부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교구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교구 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경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교구 내 선·명상 수련 체험관 건립 △금어원 건립 △교구 다비장 건립 △노비구, 비구니 수행관 건립 △수좌 스님 수행비 지급 △학인 스님 장학금 확대 △노스님 수행비 지급 확대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원경 스님은 진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은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주지와 천안 성불사 주지, 제13~15대 중앙종회의원, 천안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마곡사 주지와 사회복지법인 마곡 이사장, 대전경찰청 경승지단장, 대전충남파라미타와 세종파라미타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8월 26일

중앙선관위, 7월 13일 일정 확정

신흥사·은해사 직선직
포교 직능 대표도 선출
8월3~5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8월 26일 진행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종회의원,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종회의원, 직능대표(포교분야) 3명을 선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선관위)는 7월 13일 제37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보궐선거일 등 공고안을 확정했다.〈사진〉 보궐선거는 올 2월 신흥사 종회의원 정현 스님의 사직과 덕관 스님의 은해사 주지 취임에 따른 사직에 따른 것이며, 직능대표 포교분야 종회의원은 지난 3월 포교원장에 취임한 범해 스님의 후임이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겸직제한 소임의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8월 2일까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8월 12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며 8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단일후보의 경우 선거인 명부 확정 없이 무투표 당선된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는 8월 23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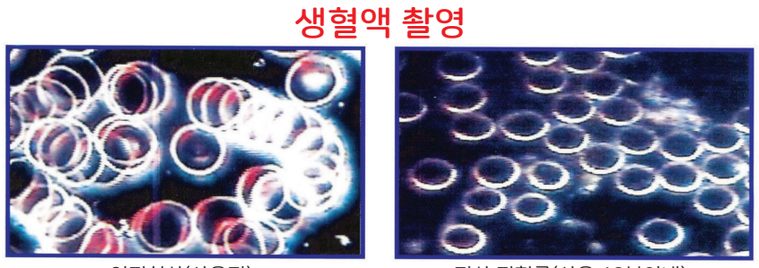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권은 해당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이거나 해당 교구의 본말사 주지, 혹은 해당 교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해당 교구에서 결계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경우 선거권이 부여된다. 또 해당 교구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는 스님 중 해당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했거나 결계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도 가능하다.

선거인 확정을 위한 거주승 신고는 7월 27~8월 2일,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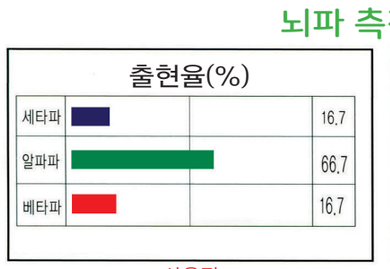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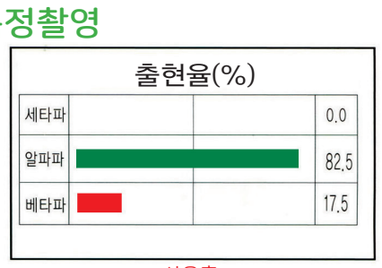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